

GO QUICKLY & TELL HIS DISCIPLES

(Matthew 28:1-10)

*"... He is not here, for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Come, see the place where He was lying. ..."*

Now after the Sabbath, as it began to dawn toward the first day of the week,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came to look at the grave. And behold a severe earthquake had occurred, for an angel of the Lord descended from heaven and came and rolled away the stone and sat upon it"(vv. 1&2). Two women came to Jesus Christ's tomb. Imagine their shock at seeing an angel whose appearance was like lightning, and his clothing as white as snow sitting on the rolled away stone. Imagine their surprise at seeing Pilate's guards lying on the ground looking like dead men, from fear. This scene was a sight of victory! Indeed, the big earthquake pointed to the big victory. As such, the sermon of the angel was urgent. He told the women,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what you have seen and what I have told. That was his order. That was our news from heaven. What was the urgent news?

The first part of the angel's message was that Jesus Christ was not there. The angel said to the women,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are looking for Jesus who has been crucified. He is not here"(vv. 5&6). The tomb was empty, but the ladies didn't believe it because they had come expecting to see Jesus' dead body. So, the angel said to them, "Come, see the place where He was lying"(v. 6). He wanted to make sure they saw the empty tomb. They needed to witness the great victory in the most horrible of places. The angels shook the whole earth, the grave was open, no body was in it, and an angel was present to deliver the sermon. The angel gave the women an order to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that He's not here.

What does it mean that He's not here? The second part of the angel's message was that Jesus Christ had risen! The angel said, "He is not here, for He has risen"(v. 6). Isn't that wonderful

news from heaven? The angel proclaimed it, and the earthly authorities fell down before it. My dear friend, do you believe this angel's message? Today is Easter Sunday, and this simple stated fact, "He has risen", is the basis of our Christian faith. Without Christ's resurrection, we have no hope. Without Christ's resurrection, there is no salvation. Paul reminds us,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your faith is worthless; you are still in your sins. Then those also who have fallen asleep in Christ have perished. If we have hope in Christ in this life only, we are of all men most to be pitied"(1 Cor. 15:17-19). My friend, I'm telling you that Jesus Christ has risen! By faith you can see it. The angel gave the women an order to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that He has risen.

The third part of the angel's message was that Jesus Christ is Lord. The angel said, "He is not here, for He has risen, just as He said"(v. 6). Before He died, Jesus told His disciples that He would rise again in three days. The place where they laid Him was empty. He is Lord, just as He said before. The angel reminded the women that they had heard from the Lord, the Son of God, that He is not here, He is risen. In other words, the angel was telling them that indeed He is your Lord. Jesus had said, "Destroy this temple, and in three days I will raise it up"(Jn. 2:19). He was talking about His body. Did not He do it? He explained, "For this reason the Father loves Me, because I lay down My life so that I may take it again. No one has taken it away from Me, but I lay it down on My own initiative. I have authority to lay it down, and I have authority to take it up again. This commandment I received from My Father"(Jn. 10:17-18). Jesus laid down His life so that He could take it again.

The angel gave the women an order to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that He is Lord, just as He said.

The angel instructed the women to tell this wonderful news to Christ's disciples. He said,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that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behold, He i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behold, I have told you"(v. 7). The disciples had to meet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Jesus Himself met and greeted the women as they left the tomb. As they worshipped Him, He told them, "Do not be afraid; go and take word to My brethren to leave for Galilee, and there they will see Me"(v. 10). Jesus wanted to see His disciples. When He did, He told them to go all over the world and proclaim the gospel message. This is great news! This is the good news that our world absolutely needs.

Let us be serious my dear friend. Come to the Lord. He wants you to come, especially today. He asked the women to go and tell His disciples to meet with Him. Right now, just like the disciples, Jesus is asking you to come to Him. He's calling out,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Mt. 11:28). Just as the angel instructed the women, Jesus commands you to quickly go, proclaim, and teach the good news of the gospel. Today is a wonderful day. Jesus is not here in an earthly grave. He died, but He is risen. He is our Lord. He wants to meet with us so that we may believe and have faith, and because He loves us. Like the disciples, He then asks us to go and tell the great news to the entire world. For some the call today is "Come", and for others it is "Go". Hear His voice, follow His command, and join Him. Amen. 🌿

속히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마 28:1~10)

“...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김성관 목사

긴급한 소식

“한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더니 큰 진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1,2절). 두 명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어야 할 돌은 굴러져 비켜 있었고, 눈처럼 흰 옷을 입고 번개와 같은 형상을 한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를 본 두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죽은 사람처럼 땅바닥에 누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빌라도의 군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실로 승리의 광경입니다! 진실로, 큰 진진은 큰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천사의 메시지는 긴급한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두 여인에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늘들이 보고 들은 말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명령이었으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식이었습니니다. 이것이야말로 긴급한 소식이었었던 것입니다.

빈 무덤

천사가 전해 준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5,6절). 무덤은 비었지만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죽은 몸을 볼 것을 기대하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6절). 천사는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확신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두 여인은 가장 급격한 곳에서 벌어진 가장 위대한 승리를 보았고 이제 그것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천사는 땅을 흔들 어놓았고, 무덤은 열렸으며, 예수의 죽은 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두 여인을 향하여 명령하였습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도”(7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6절).

다시 살아나심

그렇다면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사가 전해 준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입

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6절). 이것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소식이 아닙니까? 천사가 그것을 선포했고, 이 땅의 권세는 그 선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사의 이러한 메시지를 믿으십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매 부활주일에 듣는 “그가 일어나셨다”는 이 단순한 말씀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잡자의 자도 말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7~19).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구주이심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의 세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主)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6절).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그들이 예수를 뵈어 놓았던 동굴은 비어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진정 구주이십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하였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실제로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천사는 여인들에게 “참으로 예수는 너희들의 구주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정말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주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린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요 10:17~18).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

신대로 예수는 진정 구주이시라는 것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을 만나주실 것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거시기 앞날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으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컬느니라 하거늘”(7절). 그러므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들이 무덤에서 떠났을 때, 스스로 그들을 만나주셨고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께 경배드렸고, 곧이어 예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10절).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을 만나고, 세상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 가고 있는 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보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께로 나오십시오. 특별히 오늘 주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여인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주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만나고자 하였던 것처럼, 지금 즉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추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그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지시하였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빨리 가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은 놀라운 날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죽으셨으나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와 같이,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세상으로 가서 이 위대한 소식을 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라”는 그분의 부르심의 음성과 다른 아들을 위해서 “가라”는 보내심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그와 연합하십시오. 아멘. 

저에게 피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피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사는 집도 다르지만, 한 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형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스리랑카 형제들입니다.

처음 탐을 맡을 때, 저는 단지 외국 땅에서 겪는 외국인으로서의 아픔을 경험한 자로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탐에 간 것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기쁨을 제게 주시려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음을,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진행이 오직 영혼 구원함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역을 하면서 종종 저는 눈물이 글썽해집니다.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스리랑카팀 성경공부 담지에 각자가 좋아하는 구절과 그 이유를 적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형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마 7:13)의 말씀을 토대로 예

좁은 길을 사모하며

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비록 좁고 험하지만 구원의 길이기에 그 길을 사모한다고 고백하는 글을 썼습니다. 저는 그 형제의 가정이 독실한 불교 가정이었어서 주를 믿는 믿음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제게 계속 보여 준 모습은 복음에 눈을 뜨는 것이었고, 좁은 문에 들어가길 사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형제는 저 멀리 벽에서부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교회에 나오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8시 30분에 공장에서 나온답니다. 복음을 깨달은 이후 그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의 조종과 위협, 교회에 대한 모함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성경공부 예수도 철저히 하고, 요절 암송도 성경읽기도 열심히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수 한 끼, 김밥 하나로 때우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주님의 일이나 헌신하라고 하면 순종하며 불평할 줄도 모릅니다.

마냥 영적 어린이들처럼 그리고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어린양들로만 보이던 그들은 저의 교만과 편견을 종종 깨뜨리곤 합니다. 그들 속에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도해야 할 많은 제자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추진회 간사)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19

올해부터 각 교구 지역장을 중심으로 단기 선교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주강준현은 단기 선교팀을 이끌 각 교구 지역장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다.

작년 5월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처음 다녀왔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다. 지난 12월에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다시금 단기선교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복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올해에는 팀장으로 가야 한다고 하니 두렵고 떨려 더욱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복음만을 들고 가지고 걸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몽골의 아르항가이입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45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인구 11만 명이 살고 있지만 그 광활한 땅에 교회는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4월 21일에 출발할 예정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 팀원들 모두 열심입니다. 모두 연세가 많으신데도 2월 24일날 첫 팀모임 이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100% 출석하고 계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즘 '사'로 인해 조금 열려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겠다'고 다들 순종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언제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몽골 아르항가이/4월 21일-5월 2일)

1. 몽골 아르항가이 사람들은 대다수가 라마불교를 믿으며, 선교사가 잘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 땅의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 되길.
2.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열매 맺게 하소서.
3. 모든 팀원들이 성령으로 하나되어 불평과 오해없이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4. 팀원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비전을 품고 감당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유성태
17교구 15지역장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20

1.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

몽골 행타이아막으로 4월 28일 출발합니다. 행타이아막은 울란바토르에서 36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12인승 승합차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한 지역을 정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 도시가 인구가 7만 명 정도 되니 대원 10명이 7일간 사역을 통해 하루에 한 사람이 50명 정도의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약 3,500정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겠소.

2.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라고 생

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지역원들이 지원하지 않아 팀장으로서 매우 힘들었지만, 지금은 모두 채워졌습니다. 특히 일인당 한명을 전도하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3. 단기 선교를 위해서 주제로 삼고 싶은 성경구절과 그 이유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7-8). 우리는 선교의 열매를 속히 보려는 성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4. 단기 선교에 임하는 본인의 각오를 말씀해 주세

이라크에서는 전쟁소식이 들려오고 세계 각국으로 피난이 퍼져 인간의 마음이 약해 지는 이 때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오히려 이 때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담대함으로 선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제목(몽골 행타이/4월 28일-5월 9일)

1. 전(全)대원이 성경 충만함을 받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2. 몽골에서 하는 축회전도, 노방전도, 어린이 사역, 캠퍼스 전도 등의 사역이 하나님 뜻대로 열매가 맺도록.
3. 팀원들의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이 택한 백성을 만나게 하고 주님께 인도케 하소서.



진현애
17교구 13지역장

(영정섭 기자)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우리 교회 솔로리스트들은 찬양대 합창 뿐 아니라 예배 전 찬양, 헌금 찬양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솔로리스트들을 찾아가 찬양으로만 들든 그들의 간증을 대화를 통해 나누고자 한다.

1. 특별한 사모하는 찬송과 그 찬송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모든 찬송을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를 자주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온전히 나를 주중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이라고 찬양하면서 걱정, 좌절, 분주함으로 가득한 일상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예비하신 뜻을 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이심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3:17~18).

2.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무렵 많이 아팠습니다. 가족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어느 주일 아침 일찍 교회에 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아 텅빈 예배실 장의자에 누워 아파 누워서 교회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날 병이 나았지요. 그 후로 보리교회에 다니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가족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큰 신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3. 찬양대원으로 섬기면서 여쭙고 싶은 것이요.

18년 동안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오랜 동안 한 곳에 머물렀고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생각으로 갈등도 했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는 주일 새벽 5시 50분까지 모여 찬양을 준비하는데, 눈이나 비가 쏟아지는 날 '이 날씨가 누가 왔을까' 하며 연습실 문을 열면 자리가 꽉 차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도들이 동역하는 삶이 참 아름다운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됐습니다.

4. 기도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늘 건강하여 찬양역사를 잘 감당하며, 찬양 합창 중에도 다른 찬양대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승희 성도
가브리엘 찬양대 솔로리스트

(영합팀 기자)

다들 주일 찬송

157장 "즐겁도다 이 날"

베난티우스 포르투나투스(Venantius Fortunatus, C. 530-609)가 공부할 때 시력을 잃어 거의 장님이 될 지경이었는데 투르의 성 마르틴상 앞에 걸려있는 등잔에서 기쁨을 쬔어 눈에 밝아 완쾌된 것에 감사해서 시를 썼다. 작곡자는 프랜시스 리들리 해버갈(F. R. Havergal, 1836-1879)로서 그리스도 승천 축제 행렬식가인 "황금 하프가 울린다"의 어린이 성가곡으로 작곡하여 1871년 그의 <찬미시집(Havergal's Psalmody)>에 처음 실렸다.

1절 즐겁도다 이 날 세상에 할 말 시방먼저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지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2절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3절 생명의 주 예수 죽을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울만이 다시 살아나셨네

후렴: 즐겁도다 이 날 세상에 할 말 시방먼저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성경에 기록되니 다시 자신 예수님을 확신하며, 잠4분음표는 한 번씩 누르듯이 헌금이 부르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심령 깊숙히 찬양해야 한다.

(찬양위원회)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함 · 나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43	문병복	1 청년2부	이부성(1)	360	조경숙	3 청년1부	권병철(177)	377	김용배	19 청년2부	오준성(6)
344	이정은	1 청년2부	이부성(1)	361	부지연	4 청년1부	부지연(139)	378	양동훈	19 청년1부	양승준(12)
345	최미경	1 청년2부	김희선(1)	362	김금주	4 청년1부	윤우선(12)	379	김지선	6 청년1부	
346	정준애	1 청년1부		363	김영을	5 청년2부	김진순(5)	380	신세희	19 청년1부	문승훈(12)
347	정종신	1 교역자		364	김도근	6 청년3부	박철구(8)	381	김은아	19 청년1부	이재현(12)
348	권현주	1 사모		365	이문수	10 청년2부		382	맹도영	19 청년1부	홍명철(17)
349	이태훈	1 교역자		366	성정숙	10 청년2부	이규환(10)	383	맹성진	19 청년1부	이인숙(17)
350	안정미	1 사모		367	서민정	10 청년2부	이규환(10)	384	송희희	19 청년1부	유백종(1)
351	양재웅	1 교역자		368	전복녀	11 소년부	전복녀(11)	385	김세희	19 청년1부	양정숙(12)
352	한윤숙	1 사모		369	백한진	12 청년2부	백옥순(12)	386	김희희	19 청년1부	양옥희(17)
353	안지현	1 교역자		370	신옥림	13 청년3부	신조민(11)	387	전지영	19 대학부	박성준(8)
354	박우영	1 사모		371	김진희	14 청년2부		388	황성진	19 대학부	이연철(7)
355	최순옥	1 청년3부	이명희(6)	372	오형식	17 청년2부	정장순(15)	389	김영희	19 대학부	이연철(5)
356	유혜선	1 청년1부	장기환(10)	373	이원진	17 청년2부	서민(15)	390	송영은	19 청년1부	박정자(7)
357	이명옥	2 청년1부	손은희(2)	374	이경희	17 청년2부	서민(15)	391	황재민	19 대학부	최귀진(1)
358	서준원	2 청년2부		375	조승진	19 청년2부	서준원(16)	392	조영진	19 고등부	남주영(3)
359	송현주	2 청년2부		376	권우재	19 청년2부	주승훈(8)	393	유규리	19 고등부	김수정(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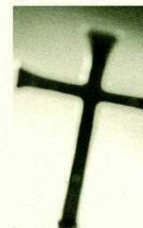
★ 찬양위원회 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교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찬양모임

1교구 테레나 4구역 **임재경(남)** 최화자 성도의 사동생으로 오토바이 사고로 발가락이 심하게 다쳐 이식수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낙관적이었으나 아직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팔리 나아서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히, 최화자 성도의 간호와 전도로 임재경씨의 어머니(최화자 성도의 시어머니)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재경씨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4교구 장원 3구역 김남중 성도의 조카 **김선욱(9살, 남)** 어린이 몇 년 전, 열이 났는데 병원들이 파업하는 바람에 열을 못 잡아 혼수상태가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식을 잃었고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워서 꼼짝 못했지만 지금은 오랜 물리치료를 통해 아주 약간씩의 거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말이나 의사표현이 아직 안되고 시력도 희미합니다. 어서 언어능력, 의사표현 능력과 시력이 회복되어 말씀을 보고 복음을 알게 되길 기도해 주세요.

마리 로이드 종신의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역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꺾박을 면하여 할 뿐이라 할례 받은 자는 저러하다 스스로 육체는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갈 6:12-13).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 선생들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가르쳤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 선생들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었을까? 자신들은 이미 받은

할례에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함으로써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치는 것 자체로서 자신들 스스로를 높인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변변하게 일어난다. 어떤 교사들은 "참 성도라면 교사는 해야지"라고 말하고, 선행이나 봉사를 많이 하는 어떤 집사는 "집사쯤 되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말한다. 박사학위를 받은 어떤 목사는 '공부 열심히 해서 엘리트가 되어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한다. 혹은 좋은 인성과 상냥한 말씨를 갖는 겸손과 인격이 성도의 최고 미덕인 양 말하기도 한다. 정말로 그러한가? 이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의롭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를 자랑하고자 함이고, 십자가의 공로를 빼앗는 것이다. 그렇다면 참 성도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나 십자가나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무엇을 말하여 그러하리라" (갈 6:14). (다들주일 계속)

(편진철)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최연철♥박경심' 부부를 소개합니다



최연철 성도는 기독교 계통의 중·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여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않고 지내왔습니다. 슬하에 남매를 두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관철 수술로 다리가 불편하게 되어 직장을 쉬고 있습니다. 아내 박경심 성도는 마음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싶었으나 바쁜 직장 생활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시고모님인 총원 교회 권사님이 예수님 믿어야 한다며 때때로 전도하였습니다. 박경심 자매도 허리가 아파서 직장을 쉬게 되어 부부가 함께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최연철 성도는 예전에는 몰랐던 예수님이 가슴에 새겨지고 말씀이 새롭게 마음에 다가온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자주 의심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리라 믿는답니다. 아내 박경심 성도는 허리가 아파서 직장을 쉬게 된 것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새가족부 집회가 한 가족같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들이 열려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먼저 믿으신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두분 가정의 필요와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숙정 통신편)

부러운 아저씨, 모세!

김 연 희 (중등2부)

나는 처음에는 애굽의 왕자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세가 굉장히 부러웠었다. 부족할 없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된 모세 말이다. 그렇지만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모세가 왕자로 부유하게 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려다 살인을 하게 되었고, 애굽 땅에서 쫓겨나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을 잃고 힘겨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모세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받은 능력이었다.

왕자처럼 넉넉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모세처럼 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강 민 철 (전도사, 중등3부 부지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사순절 기간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다가 문득 갈라디아서 6:14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깊은 감동과 잔잔한 여운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찰해 봅니다. 나 역시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가? 혹,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 바울은 학문이나 가문, 직업,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 달란트, 선교업적 등을 자랑하기 보다는 오직 십자가 만을 자랑하는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죄로 인하여 자신이 달라 고통받아야 할 십자가에서 대신 못박히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한없는 용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랑한 십자가를 반대자들은 수직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은 십자가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대하고 바라던 메시야가 기껏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또한 고대의 헬라니즘 철학의 사상체계를 완성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손들이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미련하게 보였으며 비합리적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고전 1:23).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지닌 바쁜 현대인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먼 나라의 오래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새로 산 집이나 차, 풍족한 재산, 건강, 회사에서의 지위, 자녀들의 좋은 진학 등 외적 요인들을 더욱 자랑하며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의 본질이며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민족과 국가와 인종과 성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그리스도인의 자랑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주며 자랑하는 뜻 깊은 한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중등부 기자단인 김민정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점점 커가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들어 주신다길래 기도했다가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때는 믿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없을지도 모른다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중등부 첫 수련회에서 저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특히 성경책에는 정말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었고, 그자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것을 잘 생각해보니,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여언의 편지 같았어요. 특히 어떤 선생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이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요.

또 학교에서 CA활동으로 성경읽기 반을 하는

데,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김민정 (중등1부)

믿음의 학교에서

나사로가 살아남(요 11장)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유하시라"(요 11:5).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위급한 소식을 들으시고 일주일 이들을 더 지체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랑하는 나사로를 빨리 치료하여 살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더 큰 사랑(아가페)을 보여 주시려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고통없이 빨리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겪고 난 뒤,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조금은 성숙해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으려면, 인내의 소중함도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15절). 주님의 기쁨은 '너희가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나사로의 표적을 통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후에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17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빈방히 여기사"(33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과 이를 애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조금은 성숙해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으려면, 인내의 소중함도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에 대해 비통함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35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도 그는 어차피 또 죽게 되니까요. 이 땅에서의 정해진 인간의 죽음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을 나와 같이 느끼시며 우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에 너무 행복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한마디 명령으로 인해 이미 나흘 전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43절).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전이됩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부활의 몸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소생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의 영광을 보이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 부활의 주를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25, 26절).

